

檜巖寺址 舍利塔의 建立緣起

崔 完 秀

中國에서는 盛唐以後 風靡한 密敎의 影響으로 大日法身の 形相을 表示하며 佛舍利를 奉安하는 五輪塔의 造成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塔婆樣式이 우리나라와 日本에 傳하여져서는 차라리 佛舍利塔보다는 高僧이나 門閥家의 墓塔의 一定型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五輪塔系統의 塔婆에 佛舍利를 奉安한 例는 至極히 드물어서 高麗顯宗代의 建立으로 推定된 佛國寺 舍利塔^②과 李朝 肅宗三十六年에 建立된 俗離山 法住寺의 世尊舍利塔^③의 數例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 逸名 浮圖로 傳稱되던 京畿道 楊州郡 檜泉面 檜岩里 所在 檜巖寺址의 五輪塔系 浮圖의 建立緣起를 一考하므로써 이 塔의 性格과 建立年代를 밝히어 塔婆研究를 爲한 또 하나의 例를 삼고자 한다.

檜巖寺는 麗末 禪宗의 宗匠이며 恭愍王師인 懶翁和尚이 恭愍王二十三年 甲寅으로부터 禿王二年 丙辰에 걸친 連三年의 經營으로 이룩한^④ 大規模의 禪刹로 李穡 撰인 天寶山 檜巖寺 修造記(牧隱集)에 依하면 二百六十二間의 建物과 十五尺佛像 七具 十尺觀音像 一具를 갖추고 있어 宏壯美麗함이 우리나라에서는 勿論 中國에서도 많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本寺刹은 中國을 遍歷하고 西域의 禪匠인 指空和尚의 法統을 이은 懶翁和尚^⑤이 禪風에 立脚하여 經營한 禪刹로 從來 堂塔爲主의 伽藍配置와는 判異한 性格을 드러내게 되었으니 上記 修造記에 「……予案 普光殿 五間面南 殿之後 說法殿 五間 又其後舍 刹殿 一間 云云」이라 한 것을 보면 塔婆로서의 舍利殿은 그 位置가 이미 像法에 밀리어 第三意의 人位置로 格下되어 있어 塔婆爲主의 六朝式 伽藍配置에 比較해 볼 때 이제 信仰의 對象이라기 보다는 그것의 退化의 殘滓로 차라리 裝飾의 記念物的인 性格을 띄우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政權이 交遞되어 政策的으로 佛

敎를 彈壓하며 이르러 太祖以來 朝鮮王室의 顯刹로 儒臣들의 猛烈한 非難에도 不拘하고 王家의 極盡한 庇護를 받아온 檜巖寺^⑥는 事實上 佛敎勢力의 最後의 據點이었던 同時에 橋頭堡로써 王室을 등에 지고 富의 彈壓을 謀免하며 機會있는 대로 敎勢의 擴張과 傳敎에 全力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儒臣의 反抗을 徹底히 封鎖하고 政變으로 執權한 世祖가 登極하여 崇佛政策을 試圖하며 太宗의 第二王子로 出家한 孝寧大君 補가 檜巖寺에 居하여 大願力을 發하여 前後 二次에 걸친 釋迦舍利分身의 異蹟을 證하므로 王力에 馮하여 크게 佛事를 이르고 敎勢의 挽回를 꾀하게 되었다. 第一次의 舍利分身의 異蹟은 世祖七年辛巳夏五月壬子로부터 丙辰 丁巳의 三회에 걸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世祖는 親히 楞嚴經을 翻譯하고 如來像 二具 및 觀音·地藏 二菩薩을 造成하여 所得舍利와 더불어 興天寺 舍利閣에 奉安하고 興天寺의 鍾을 新鑄하기에 이르렀으며^⑦ 世祖十年甲申의 第二次 釋迦舍利分身의 結果로는 圓覺寺의 建立을 보게 되었는데 金守溫 撰인 圓覺寺碑銘并序(李能和)「朝鮮佛敎通史」上編 P. 四二〇—四二二)에 「……是年(甲申)夏四月庚戌 孝寧大君 補 於檜巖東崗 豎石鍾 厝釋迦舍利 仍說法會 講圓覺經 是夕 如來現相 空中 神僧經行壇上 瑞氣彌布 放光照耀」이라 하여 그 靈蹟의 全貌를 傳하고 있으며, 世祖實錄 第三十三卷 十年 五月 甲寅條에도 上記 碑銘과 同一한 內容을 傳하고 있다. 그러나 實錄의 撰者는 이어 「孝寧大君 補 佛甚篤 自少至老 尤甚 以檜巖寺爲願刹 常往來齋施 至是 如來現相 神僧繞塔 他人皆不得見 而唯補自言見之」라 하여 이 靈蹟의 事實이 孝寧大君에 依해 造作된 것인듯 懷疑의 態度를 取하고 있으나 그 靈蹟의 事實與否는 이곳에서 論할 바 못되는 것이오 다만 이 靈蹟이 寺刹建立當時 이미 第三意의 人位置로 格下된 舍利殿에서 世祖때에 孝寧大君에 依하여 이루어진 事實만은 無心히 看過할 수 없을 것 같다. 더욱기 위에 引用한 圓覺寺碑銘과 世祖實錄에 依하면 孝寧大君이 檜巖東崗에 釋迦舍利塔을 세우고 世祖自身이 翻譯한 圓覺經^⑧을 講說하므로써 이런 靈蹟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니 이는 舍利의 宗敎의 神秘性(禪)의 哲學的인 合理性에 對한)을 내세워 佛敎重興의 새로운 突破口를 찾으려는 世祖와 孝寧大君의

佛敎 重興策의 一段이라 하여도 지나친 憶測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佛敎重興의 方便으로 建立된 檜巖東崗의 釋迦舍利塔이 果然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된다. 이 塔에 對한 具體的인 記事로는 上記 圓覺寺碑文 引文의 「於檜巖東崗 豎石鐘 厝釋迦舍利」이나 이로 보면 이 塔의 位置가 檜巖寺의 東邊의 어느 地點인 것이고 그 外形은 樓閣式 平面多角形의 層塔類는 아닐 것이며 母岳山 金山寺의 松臺石種으로부터 비롯한 覆盆式浮圖^⑩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佛國寺舍利塔이나 弘法大師 實相塔에서 淵源한 五輪塔形式^⑪을 取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推測할 수 있다. 그런데 本檜岩寺址 佚名浮圖는 바로 五輪塔의 形式을 가지 고 寺址의 東邊 北端의 高臺上에 位置하고 있다. 따라서 本浮圖가 바로 世祖十年(A.D. 一四六五) 甲申四月에 世祖와 孝寧大君의 佛敎重興策의 方便으로 孝寧大君에 依해 建立된 釋迦舍利塔이라 함에는 異議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本舍利塔이 五輪塔의 形式을 取하게 된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密敎의 內密한 神秘性을 強調하려는 意味인듯 생각하나 이에 對하여는 本舍利塔의 位置問題 및 樣式考察과 더불어 後稿로 미루려 한다.

註

- ① 望月信享「望月佛敎大辭典」Vol. 2. P. 一三九〇 五輪塔 項 및 高裕 燮「佛國寺의 舍利塔」(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 P. 一五六
- ② 高裕燮 前掲書
- ③ 「朝鮮寺刹史料」上編 P. 一二六 報恩郡 俗離山法住寺世尊舍利塔碑 銘并序
- ④ 李稿撰 普齋尊者謚禪覺塔銘并序(李能和「朝鮮佛敎通史」中編 P. 二五九) 및 門人 覺宏錄 懶翁和尚行狀(李能和「朝鮮佛敎通史」中編 P. 二六九)
- ⑤ 懶翁和尚行狀(李能和「朝鮮佛敎通史」中編 P. 二六一—二六六) 및 朝鮮佛敎通史 中編 P. 二五五—二五六
- ⑥ 太祖는 王師 無學을 檜巖寺에 請住케 하고 遣使設齋와 賜穀帛은 每舉할 수 없을 程度이고 在位時에 親幸飯僧單도 三次에 이르며(太

祖二年二月己亥, 同三年 八月壬午, 同七年 二月丁未) 王師 無學의 浮圖를 生時에 預造하고(太祖六年七月辛未條) 太上王으로 退位한에 미처서는 檜岩寺에 行宮을 짓고 留居하기 조차 하였으며(太宗二年 六月辛酉) 이로 말미암아 太宗도 王室의 願利로 格格한 配慮를 아 끼지 않았다(太宗八年春正月癸丑, 同年六月壬戌, 同十年六月乙丑, 同十三年五月己卯).

世宗 亦是 儒臣들의 猛烈한 反對에도 不拘하고 母后 元敬王后 閔氏의 繡佛을 奉安한 것과 太祖의 信重했던 것을 들어 機會있는 대로 補修하고 穀帛과 香을 下賜하였으며(世宗十五年夏四月戊午, 己未 庚申, 癸亥) 다시 親兄인 孝寧大君이 檜岩寺에 住하여 佛寺를 設하 고 寺字를 重創하매 또한 世宗은 儒臣들의 反對를 撫摩하며 內帑米 布로 이를 도왔고(世宗十七年三月己酉, 庚辰, 辛巳) 婦女往來를 禁하기 爲하여 遣吏查察을 主張하는 司憲府의 奏請을 「儒徒不能安心 修禪」이라 하여 이를 不許하였다(世宗二十七年夏四月乙丑).

- ⑦ 太宗實錄第三卷 二年五月甲辰條, 辛酉條, 同第四卷 二年秋七月 甲午條, 八月癸丑條, 戊午條, 己未條, 同第六卷 三年十月乙未條, 同第十三卷 七年五月丁丑條, 同第十五卷 八年春正月癸丑條, 同第十 九卷, 十年六月乙丑條, 同第二十五卷 十三年五月己卯條, 世宗實錄 第六卷 元年十一月戊午條, 同第六十四卷 十五年夏四月丁巳條, 戊午 條, 己未條, 庚申條, 癸亥條, 同第六十七卷 十七年三月己卯條, 庚 辰條, 同第七十二卷 十八年六月乙巳條, 同第九十四卷 二十三年閏十 一月癸酉條, 同第八十八卷 二十七年夏四月乙丑條, 同第一百二十二卷 二十 八年六月乙卯條, 同第一百三卷 二十八年八月甲寅條
- ⑧ 韓繼禧撰 興天寺新鑄鐘銘并序(李能和「朝鮮佛敎通史」上編 P. 四 一一—四一二)
- ⑨ 金守溫撰 圓覺寺碑銘并序 參照
- ⑩ 印度의 산치(Sanchi)塔系統의 覆盆式浮圖는 우리나라에서는 五輪 塔과 더불어 浮圖의 一定型을 이루어 李朝期에 들어오면 外飾을 마 치 鐘과 같이 꾸며서 名實相符한 石鐘의 形態를 取한다.(妙香山安 心寺石鐘)華嚴寺 指空定慧靈照塔, 普賢寺西山大師墓塔, 海印寺松 雲大師墓塔, 仙岩寺向西堂墓塔, 松廣寺慧空墓塔, 松廣寺玩華堂墓塔

註2參照

考古美術 卅一

◎ 文財委 第一分委(第十一次)

一九六七年 九月 二三日 文化財管理局에서 開催, 出席委員 金庠基 李弘植 金允基 崔淳雨 鄭寅國 秦弘燮, 關係官 河文財局長 黃係長 姜學藝士,

一、討論案件, 德壽宮內 世宗大王銅像建立... 다음條件下에 原案 可決

(1) 坐寮의 높이를 낮힐 것

(2) 建立位置는 中和殿 東側에 東向하여 設置할 것

(3) 施工에 있어서는 崔淳雨 委員의 指導를 받을 것

二、國博 梁山貝塚 發掘許可申請 可決

三、光化門 復原設計檢討

指導委員인 崔淳雨 委員의 設計圖 作成經緯說明이 있었고 새로운 指導委員 會人選을 崔淳雨 鄭寅國 兩委員에 委任

◎ 文財委 第二次總會

一九六七, 一〇, 四 文化財管理局에서 開催 金庠基 委員長, 各分委長 委員 出席關係官 金文敦次官, 河文化財局長, 文化財課係長 學藝士等 參席, 討論案件 다음과 같다.

一、서울特別市 都市計劃에 따르는 七宮內道路 貫通으로 因한 一部 撤去와 宗廟담을 9m 안으로 移置하여 德壽宮式의 鐵柵으로 하고 그 밖으로 순환道路를 設置하는 計劃內容을 檢討한 結果에에 反對하는 從來의 態度를 再確認하고 政府 高位層에 그 不當性을 強調하여 그 保存에 萬全을 期할 것은 委員長團에 委任하였다. 이날 文化財保護法에 依하여 指定된 文化財는 同法에 依하여 指定을 解除하지 않는 限 都市計劃法에 依하여 現狀變更을 할 수 없다는 法務部의 有權解釋이 있었다는 說明이 있었다. 그런데 七宮과 宗廟는 모두 史蹟으로 指定되었다.

◎ 文財委 第一分委(第十二次)

一九六七, 一〇, 六 文財局에서 開催, 金庠基 李弘植 鄭寅國 崔淳雨 秦弘燮 委員出席 裴吉基 委員(委任) 關係官 河局長 黃係長 姜學藝士參席, 討論案件 다음과 같다.

一、聖帝廟 指定 否決

二、圓丘壇一部解除 조선호돌 建築으로 圓丘壇指定區域內 建築物이 차지하는 部分만 解除 可決 但, 階段을 保存한다.

三、文化財保護區域指定

(1) 羅州 鐵川里 七佛石像

(2) 羅州 鐵川里 石佛立像의 二點의 周圍에 石佛에서 一〇m距離의 區域으로 指定

四、史蹟 首露王妃陵 現狀變更

(1) 枯死木 六五本伐採

(2) 陵齋室 基礎改築

(3) 배취 六個 設置 可決

五、寶物 弘濟洞 五層石塔 移建 不可 環境整理할 것

六、成均館大 城東區 石村洞, 可樂洞 古墳 發掘申請 保留

李弘植, 秦弘燮, 兩委員이 現地調査後 保存策을 講究한다.

七、文化財補修

(1) 寶物 桐華寺毘盧庵三層石塔——人爲的으로 各부가 移動攪亂되었음 可決 工事費 一八四,〇〇〇 但 解體時 委員이 立會할 것. 工事指導 金周泰 專門委員

(2) 寶物 堤川長樂里七層模埽石塔 可決 補強費 一八〇,〇〇〇(執行) 工事費 一,六三三,九六一 工事指導 金周泰, 孟仁在, 兩專門委員 實測擔當 金東賢

(3) 寶物 安東造塔洞五層埽塔 工事期間中 李弘植, 崔淳雨, 秦弘燮 委員等이 交替로 立會한다.

工事費 一〇三,〇〇〇 新造해야 할 埽材만 準備할 것

八、서울城廓解除部分中 一部補修 可決

九、光化門復原設計指導員 構成

鄭寅國, 崔淳雨, 秦弘燮, 尹張燮, 金東賢, 金周泰, 申榮勳